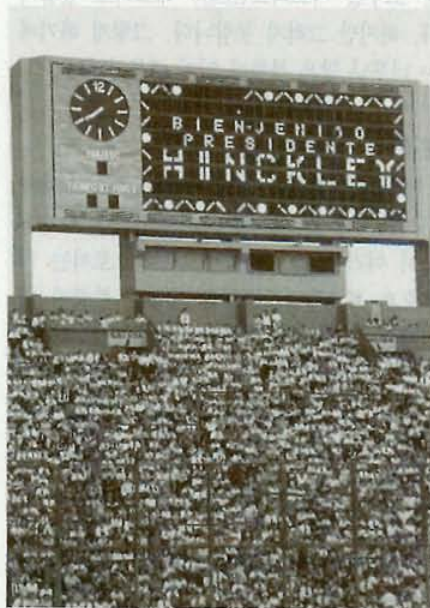


힝클리 대관장, 남미, 플로리다, 워싱턴 디시 방문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페인어로 힝클리 대관장님을 반기는 전광판이 보인다.
사진 촬영: 나스토르 쿠르벨로

1996년 11월에 남미 6개국 및 미국 플로리다로의 12일 간의 순방 동안, 힝클리 대관장은 10개 도시를 방문해 20여 개가 넘는 모임에서 218,000명으로 추산되는 말일성도들에게 말씀을 했다. 스물 두 곳의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4,000명 이상의 복음 선교사들에게도 말씀하고, 정부와 언론 대표들을 만났으며, 콜롬비아 보고타 성전의 건축 부지를 방문하고, 볼리비아 코차밤바와 브라질 레시페 성전 기공식에도 참석하여 첫삽을 뒀다. 힝클리 대관장의 아내 마조리 힝클리 자매와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가 동행했다.

콜롬비아 -- 성전에 대한 열기

대관장의 첫번째 기착지는 콜롬비아의 보고타였다. 그는 그곳에서 성전 부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7,000여 명에 이르는 콜롬비아 성도들과 실내 원형 경기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교회의 대관장이 콜롬비아에 19년 만에 처음 방문하는 것이다. 보고타에 머무르는 동안, 힝클리 대관장과 스코트 장로는 남미 북 지역 회장단의 프란시스코 제이 비나스 장로와 지역 관리 역원인 칼비 프랫 장로가 수행했다.

대회 연설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새로운 콜롬비아 성전에 대한 말씀을 했다. '성전이 건립되는 현장을 보고 무척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오랫동안 견뎌 오셨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딘 지 어느덧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사가 진행 중이며, 2년 내에 완공될 것입니다. 만일, 이곳에 모이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할 것이며, 주님의 영을 느낄 것입니다.'

페루 --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

힝클리 대관장은 그후 페루 리마를 방문하여, 선교사들을 만나고, 총 28,000여 명에 이르는 말일성도들이 참석한 두 차례의 대회를 가졌다. 남미 북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 제이 이 젠슨 장로가 힝클리 대관장과 스코트 장로를 수행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다시 성전을 주제로 말씀했다. "우리가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보다 훌륭한 아버지요 남편으로, 보다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업 때문에 많은 일을 하느라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 간다

면, 축복받으리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리마의 청중들에게 물몬경의 유산에 대해 일깨워 주었다.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선조인 리하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 사랑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페루에서 이 일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이 사업은 계속되며 더욱 더 성장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입니다. 복음대로 생활합시다. 신성한 진리의 길을 따릅시다. 전능하신 이의 도움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볼리비아 -- 성전 기공식

"더울 것이라는 생각에 비옷을 챙기지 않았 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이 볼리비아 코차밤바에 모인 선교사들에게 말씀했다. "지금 우리는 이 코차밤바에서 지난 10년 동안 맞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심한 폭풍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기공식은 비록 단축되긴 했지만, 그날 초저녁에 어김없이 진행되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비에 흠뻑 젖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는 말로 우산을 쓰거나 비닐 조각을 머리에 덮어 쓴 채 웅기웅기 모인 4,000여 명의 볼리비아 말일성도들에게 말씀을 시작했다. 그는 어린 소녀였을 때 파테말라 성전 기공식에 참석했다는 어느 젊은 여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 편지는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와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그곳을 방문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당시의 그 어린 소녀는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였을 때, 성전에서 결혼 하리라는 결심을 굳게 다졌는데, 세월이 흐른 후,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났고, 파테말라 성전에서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성전 추천서를 받게 되기를 적극 권고합니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권고했다. “앞으로 2년 간은 여러분이 새로 지어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추천서를 늘 소지함으로써 성전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도록 합니다.”

칠레 —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을 듣고자, 예상보다 15,000여 명이나 더 많은 48,000여 명의 칠레 회원들이 300여 대의 버스를 비롯하여 여러 방법으로 산티아고의 한 경기장에 집결했다. 칠레 지역 회장단인 칠십인 정원회의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와 그의 보좌인 칠십인 정원회의 제럴드 엘 테일러 장로 및 지역 관리 역원인 에두아르도 에이 라마르틴 장로가 힝클리 대관장과 스코트 장로를 수행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각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말일성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일정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일성도로서 보다 굳건하게 생활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보다 온전하게 복음대로 살며,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영예롭게 하며,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각인 것입니다.”

후에 힝클리 대관장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하몬드 장로는 회원들이 대회

에 참여하기 위해 치른 희생의 일례를 들어 주었다. 어느 한 가족은 버스비가 없어서 밀가루 한 포대를 살 만큼의 돈을 빌렸다. 어머니는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길거리에 대다 팔았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빌린 돈을 갚고 가족이 산티아고를 갔다 올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 — 아브라조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지에서 약 50,000여 명의 성도들이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을 듣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모여 들었다. 남미 남 지역 회장단인 칠십인 정원회의 존 비 덕슨 장로와 그의 보좌인 칠십인 정원회의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 및 지역 관리 역원인 휴고 에이 카르론 장로는 힝클리 대관장과 스코트 장로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영접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선교사들과의 모임을 갖기 전에 아르헨티나 종교 등록소의 책임자인 호세 까밀로 카도소 박사를 예방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카도소 박사에게 종교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울이는 그의 노력과 교회가 아르헨티나에서 누리는 경의와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명했다. 카도소 박사는 힝클리 대관장에게 아르헨티나에서 종교 간의 평등을 유지하려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금은 종교간에 상호 협조 관계를 맺고 형제애를 가질 때라고 덧붙였다.

대회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

다. “한때 우리의 수는 아주 적었으나, 이제 전세계의 160개국에 퍼져 있으며, 970만 명의 성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개인적인 친분을 갖는 일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 마음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아브라조(포옹)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 네 개 도시 방문

힝클리 대관장은 포르투알레그레, 상파울루, 레시페 및 마나우스를 방문하며 브라질에서 여러 날을 보냈다. 대관장으로서의 처음으로 포르투알레그레를 방문한 힝클리 대관장은 선교사들을 만나고, 6,000여 명에 이르는 성도들과 모임을 가졌다. 회원들 중 상당수는 발디딜 틈없이 꽉 메운 대회장에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으로 말씀을 들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상파울루에서 두 차례의 모임을 갖고 4만여 명에 이르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며, 그 다음날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만났다.

그후 그는 북부의 레시페로 날아가, 선교사들과 모임을 갖고, 2,5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전 기공식에 참여했다. 레시페에서 저녁에 가진 대회에는 14,000여 명의 말일성도들이 참석했다. 브라질에서의 마지막 방문지는 아마존 강 유역의 우림 지역에 있는 마나우스였다. 대관장은 그 곳에서 선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가운데),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힝클리 대관장 바로 옆) 및 기타 교회 지도자들이 콜롬비아 보고타 성전의 건축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 촬영: 로웰 하디



▽ 칠레 산티아고의 대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힝클리 대관장(맨앞쪽)과 힝클리 지맥(왼쪽) 및 스코트 장로(오른쪽) 사진 촬영: 나스토르 쿠르벨로



▽ 힝클리 대관장(가운데) 스코트 장로 및 브라질 지역 회장단의 총관리 역원들이 브라질 레시페 성전 기공식에서 첫삽을 뜨고 있다. 사진 촬영: 클레임슨 드 프레이타스 캠포스





△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어린이 한 명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힝클리 대관장. 사진 촬영: 로렐 하디



△ 플로리다 선라이즈에서 회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힝클리
대관장. 사진 촬영: 니콜라스 바이엔젤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왼쪽)과 닐 에이 맥스웰
장로(가운데)가 워싱턴 다시 대학살 기념관의 연구 책임자인
마이클 버렌바움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교사들을 만나고 5,000여 명의 회원들이 참
석한 대회를 감리했다.

브라질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는 총
관리 직원들인, 칠십인 정원회의 달라스 앤
아치볼드 장로와 역시 칠십인 정원회에 봉
사하고 있는 더블류 크레이그 즈위크 장로
및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도 몇 곳
의 모임에 참석하여 말씀을 했다. 회원들과
의 모임에서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
한 간증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무릎을 꿇
고 간구해 보십시오. 물문경을 읽으십시오.
성찬식에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서서히 자라날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브라질 레시페 성전 기공
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의 집
에서의 의식이 없이는 복음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
는, 이 거룩한 집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전을 갖기에 합당한 생
활을 하기를 권유합니다. 성전에 자주 오시
도록 권유합니다."

플로리다 방문

솔트레이크로 돌아오는 길에, 힝클리 대관
장은 미국 남부의 플로리다에 들러 포트로러
데일과 마이애미의 여러 스테이크에서 온 약

6,000여 명의 회원들에게 말했다. 두 차례
의 모임이 열렸는데, 한번은 영어로 또 한번
은 스페인어로 열렸다. 플로리다 선라이즈에
서 가진 모임에서는 힝클리 대관장과 스코트
장로 곁에 북미 남동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정
원회의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가 동석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남편과 아내들에게 서로
친절하고 관대하며, 서로에게 화를 내는 일
이 없도록 하며, 교회의 부름과 임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서로를 지지하도록 권고했
다. 가족은 가족 기도를 하고 가정의 밤을
가져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화가 아닌 사
랑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플로
리다 성도들에게, 그들이 진실되고 충실하
면, 축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이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디시에서의 아름다운 이야기

남미와 플로리다의 여행을 마친 지 한 달도
채 안되어, 힝클리 대관장은 워싱턴 디시를
방문했다. 그는 워싱턴 디시 스테이크 건물에
모인 1,8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했
다. "하나님께서서는 무언가 가치있는 일을 하
시기 위해 여러분을 이 지상에 보내셨습니
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말했다. "하나님
은 그분의 표적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
러분은 그분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다음날, 55개국에서 온 대사 및 사절들 뿐
만 아니라 미정부 관리들이 대거 참석한 모임
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

는 구세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이렇
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평강의 왕
이신 그분의 탄생에 관한 영원하고도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집을 뒤로한
채 속국의 어느 초라한 마구간에 필멸의 몸을
입고 천대받는 사람들 가운데에 탄생하셨습니
다. 나사렛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
시킨 분도 없습니다."

십이시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칠십인 정원회의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워싱턴 디시 스테이크의 랄프 하디 스테이크
부장이 수행하는 가운데, 힝클리 대관장은 미
국 대학살 추모 기념관을 방문하여 제2차 세
계 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숨겨 간 6백
만 명의 유대인들의 명복을 기렸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 방문에 대해 "겸허함을 느끼게
하는 매우 숭고한 경험이었습니니다."라고 말했
다. 힝클리 대관장은 정부 지도자들과 언론
인들이 참석한 오찬 모임을 갖고, 약 1,300명
에 이르는 워싱턴 성전의 의식 봉사자들과 성
탄절 영적인 모임을 가졌다.

이 기사는 콜롬비아에 관해서는 하비에르 토반
간니마, 볼리비아에 관해서는 호사 퀴로가 파티
야오 및 빅토르 휴고 아그라몬트, 칠레와 아르헨
티나에 관해서는 나스토르 쿠르벨로, 브라질에
관해서는 린다 리치에 아키볼드, 플로리다에 관
해서는 베스 모먼, 워싱턴 디시에 관해서는 호엘
린 만 데니어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다. □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및 베네수엘라의 교회



프란시스코 제이 비나스 장로



제이 이 잔슨 장로



칼 비 프랫 장로

교회의 남미 북 지역에 있는 5개국에서 성전이 완공되었거나, 건립 중이거나, 설계 중이거나, 또는 발표됨에 따라, 개종, 지속적인 활동화, 활동 촉진에서 더욱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및 베네수엘라의 교회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 편집자는 남미 북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제이 이 잔슨 장로와 그의 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프란시스코 제이 비나스 장로 및 지역 관리 직원인 칼 비 프랫 장로와 이야기를 나눴다.

질문 이들 5개국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응답 우리는 머지 않아 이 지역의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각종 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회원들은 그들 나라에 건축하기로 계획된 성전에 관해 최신 소식을 물어 봅니다. 페루 리마 성전이 1985년에 헌납된 이래, 페루에서는 영적인 강건함이나 회원수의 측면에서 눈부신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 사는 회원들이 페루의 리마 성전에 가려면 5-7일이나 걸리며,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에 있는 회원들은 3-5일이 걸립니다. 이처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원하는 만큼

성전에 자주 방문하지 못하거나 아예 염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은 곧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보고타 시내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콜롬비아 보고타 성전은 기초 및 지하 콘크리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근처에 세워지는 성전 숙소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도 곧 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며, 볼리비아 코차밤바 성전의 건축은 1997년 상반기 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발표가 된 베네수엘라 성전은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말일성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그 국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미 페루의 리마 성전을 통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성전 부근에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아름답게 조명된 거리와 거리를 따라 잘 조성된 집들이 성전 주변을 둘러 싸고 있습니다. 이미 콜롬비아 보고타 성전과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 부지 근처에서도 비슷한 발전 양상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영향을 받게 되면 사람들의 내면에도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은 연못에 돌맹이를 던지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생겨나는 물결은 사방으로 퍼져 나가면서 닿는 모든 것을 고양시킵니다.

질문 이들 나라에서의 교회의 성장은 어떻습니까?

응답 우리는 이 지역 교회의 이 세대들이 강건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한 예로, 최근에 저희가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을 방문했는데, 한 반의 선교사 9명 중 8명이 귀환 선교사의 자녀였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많이 성숙해지고 발전했는가를 나타냅니다.

최근 수년 동안 페루와 콜롬비아에서 봉사하는 북미 선교사와 총관리 직원들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되긴 했지만, 이제 남미와 북미 선교사들이 이들 다섯 나라에서 함께 나란히 봉사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보완하고 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전을 통해 발전하지요. 이 곳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잔슨 장로께서 1970년대 중반에 콜롬비아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할 때만 해도 북미 선교사들이 콜롬비아로 들어가는 비자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1975년에는 북미 선교사로 봉사하는 콜롬비아인 선교사가 단 세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1978년까지 그 수는 5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원들은 북미 선교사들이 줄어들면서 생긴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것입니다. 오늘날, 그 자국 선교사들이 스테이크 부장단과 감독단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선교부장이나 지역 관리 직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는 이들 나라에서 많은 훈련과 경험을 쌓은 교회 지도자들이 큰 힘을 발휘해 주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회원들은 복음 안에서 어떻게 개척자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응답 우리 회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하나는 가난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교통과 통신에서 제한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가정 복음 교육이나 방문 교육과 같이, 양을 치는 일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조차 일부 회원에게는 큰 난관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여 보면, 건물 밖에 너댓 대의 차만이 주차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가정의 경우, 교통비가 모자라서 가족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주는 엄마와 딸이 가고, 다음 주는 아빠와 아들이 가고 하는 식이죠. 개척자 회원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단위 조직을 지리적인 범위에 서나 회원 수에서 보다 작게 구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회원들이 걸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집회소를 세운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이들 나라에서 교회는 성장해 왔으며, 그 저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먼 곳에서 많은 힘을 발견하곤 합니다. 말일성도 개척자들의 노력 덕분에 회원들이 이 나라들의 전역에 퍼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우리는 전통적인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벽지 인디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부락의 촌장의 아들이 큰 도시로 나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에 있는 동안 그는 선교사를 만났고 교회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부족에게로 돌아가 그들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와 같은 개척자가 이 다섯 나라의 전역에서 복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의 대다수의 개종자들은 비천하고 가난한 계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 새로운 회원들에게는, 복음이 자신들

의 삶에서 진보와 발전의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촉매제입니다. 복음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며 교육을 받고, 보다 열심히 일하며, 삶의 표준을 높임으로써 가족들을 보다 잘 부양하고자 합니다.

질문 회원들은 개종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고 회원들의 활동을 촉진시켜 나가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응답 새로운 회원을 교회에 계속 남아 있게 하는 열쇠는 가능한 한 가족 모두를 침례 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가정에 아론 신권 소유자가 있게 하고, 나아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있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이 신권 소유자이고 또한 활동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경우, 온 가족이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나라에 성전이 생기면, 개종자의 활동 지속률이 보다 향상될 것입니다. 많은 회원이 침례 받은 후 일년 후에 성전으로 가는 실질적인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하이의 겸손한 자녀들은 가르침을 받고 개종하여 활동화되는 과정을 매우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스펜서 더블류킴볼 대관장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들은 물론경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들에 귀기울이는 매우 민감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진듯 합니다. (1980년 연차 대회, 진 알록 장로의 말씀 참조) 어떠한 연유로 교회에서 잠시 떠난 회원들도,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방문할 때, 다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페루의 한 시에서 네 번째 스테이크를 창립하기 2개월 전에, 지역 지도자들이 지역 내에 사는 기록상에 나와 있는 모든 회원들을 방문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많은 단위 조직에서는 성찬식 참석 수가 경총 뛰어 올랐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복음으로 이끌려 오기를 바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교회의 성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백만 명을 돌파한 남미의 회원 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으로 이루어진 남미 12개국의 교회 회원 총수가 1996년 6월을 기점으로 이 백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남미 회원수가 전체 회원수의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지구에서 네 번째로 큰 남미 대륙의 인구는 3억 13백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수는 지구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수이다.

회복된 복음이 남미에 처음 상륙한 것은 팔리 피 프랫 장로와 푸퍼스 시 앨런이 칠레를 방문했던 1852년이였다. 하지만, 교회는 독일에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 이민을 말일성도 이주민들이 미친 영향에 의해 선교사들이 아르헨티나에서는 1925년에,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1929년에 각각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굳건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던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는 1925년 12월 25일에 복음 전파를 위해 남미를 헌납하면서, "떡갈나무가 도토리에서 서서히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사업이 이 땅에서 진척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미 선교부가 교회의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축복한 바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235,000명, 브라질에는 548,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 1947년에는 우루과이, 1950년에는 파라과이, 1956년에는 칠레, 1963년에는 볼리비아, 1965년에는 에콰도르, 1966년에는 콜롬비아, 1966년에는 베네수엘라, 1988년에는 가이아나, 1988년에는 수리남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현재 우루과이에는 64,000여 명, 파라과이에는 24,000여 명, 칠레에는 384,000여 명, 페루에는 279,000여 명, 볼리비아에는 589,000여

명, 에콰도르에는 128,000여 명, 콜롬비아에는 113,000여 명, 베네수엘라에는 73,000여 명, 가이아나에는 500여 명, 수리남에는 300여 명의 회원들이 각각 있다.(각 나라의 회원 통계는 1995년 말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바쁜 여행의 해를 보낸 힝클리 대관장

1996년 한해 동안 힝클리 대관장은 22개국, 13개 주 및 워싱턴 디시를 방문했다. 이에 걸맞게, 미국 이외의 지역에 사는 교회 회원 수가 미국 내에 사는 교회 회원 수를 처음으로 능가한 지난해에 힝클리 대관장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315,649명의 말일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대부분 해외에서 85,442마일(137,561킬로미터)을 여행했다.

199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힘찬 여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게 힘이 있는 한 국내외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감사를 표하고 격려해 주며 신앙을 강화시키고 가르치고 그들의 간증에 저의 간증을 더하고 동시에 그들에게서 힘을 끌어 모을 것입니다." (성도의 빛,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1996년 7월호)

힝클리 대관장이 한 해 동안 행한 주요 업

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홍콩 성전과 마운트 팀파노고스 성전 헌납
- 스페인 마드리드, 브라질 레시페, 볼리비아 코차밤바 등지에서 성전 기공식 감리
- 대관장으로서 처음으로 중국 본토 방문
-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칠레의 산티아고, 브라질의 상파울루, 필리핀의 마닐라 등지에서 수많은 말일성도들에게 말씀
- 북을 전파를 위해 캄보디아 헌납
- 8개 지역 대회에서 말씀
- 183회의 말씀
- 5회의 기자 회견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60분'과의 인터뷰

힝클리 대관장은 미국내의 남부 텍사스 리오그란데 계곡과 남부 유타를 방문하는 것을 필두로 한해를 열었다. 그는 또한 멕시코 베라크루스를 방문하여 지역 대회를 감리하였다. 2월에는 하와이에서 지역 대회를 갖고, 2월과 4월 사이에 미국 내의 텍사스 북중부 지역,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펜실베이니아 등지를 방문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5월에 1996년의 3차례 외국 여행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 여행을 위해 장도에 올랐다. 18일에 걸쳐, 그는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사이판 등지의 13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75,000여 명이 넘는 청중에게 말씀을 전했다.

힝클리 대관장의 활기찬 행보는 6월에도 조금도 늦추어지지 않았다. 그는 6일 간에 걸쳐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유럽 5개국을 순방했다.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 성전의 기공식에서 말씀을 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 나라를 방문한 첫번째 대관장이다.

그는 유럽 순방에 이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6월부터 9월 사이에, 그는 미국 내의 아이다호, 일리노이, 뉴욕,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미주리, 오레곤 등지를 방문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11월에 남미로 내려가,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지에서 218,000여 명이 넘는 말일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강화시켰다. 남미에서 돌아오는 길에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서 두 차례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힝클리 대관장은 12월에, 워싱턴으로 가서, 55개국의 대사들과 사절들에게 말씀했으며, 브라질 대사와 함께 교회의 워싱턴 성전 방문자 센터에 마련된 성탄절 기념 점등식에서 점등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애리조나 투손에서 가진 노변의 모임을 통해 청소년들과 선교사 및 보이스카우트에게 말씀한 것을 끝으로 바쁜 여행의 한해를 마무리지었다. 그는 또한 물론 대대 기념비를 헌납했다.

비록 여행은 힘겨웠지만, 힝클리 대관장은 "충실한 말일성도의 얼굴을 들여다 보며 약속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성도의 빛, 1997년 3월호 참조) 힝클리 대관장은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한 전세계의 말일성도들 가운데로 나아가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타임즈의 래리 윌만과의 인터뷰, 1996년 12월 2일자)

종교 자유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국무장관의 위촉을 받아 국무성에 모든 종교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20여 명의 저명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명되었다.

이 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종교계와 정부간의 보다 원활한 의사 소통을 증진시키며, 전세계에 걸쳐 소수 종교가 당하는 박해에 대한 정부의 이해를 증대시키며, 일반 국민들에게 종교 박해와 종교 자유의 문제에 기울이는 정부의



△ 멕시코 베라크루스의 지역 대회를 필두로 세계 여행의 바쁜 한해를 시작한 힝클리 대관장. "이 성전은 제가 일생 동안 꿈은 고귀한 이상의 하나가 실현됨을 의미합니다." 힝클리 대관장이 5월에 홍콩 성전 헌납을 위해 홍콩에 머무르는 동안 한 말씀. 사진 제공: 처치 뉴스

▷ 힝클리 대관장이 7월에 아이오와를 포함한 5개 주를 방문하는 가운데, 카운실블러프의 야외 노변의 모임에서 말씀을 전함. 사진 촬영: 델 뱅 오던 사진 제공: 처치 뉴스



노력을 홍보하는 것이다.

넬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분명히, 전세계의 종교 자유화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대의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교회를 대변할 수 있도록 위촉된 것을 영예로 생각하며, 이 특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 강의를 개설함

루마니아에서는 현재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 강의가 실시되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 주 출신의 교회 교육 기구 선교사인 앨런과 패트리샤 더들리 부부가 강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복음 가운데서 더욱 강건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더들리 자매는 말한다.

교회 교육 기구 신학 연구원 과정은 135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교회 교육 기구 존(Zone) 코디네이터인 브루스 레이크 형제는 말한다. 루마니아에서의 프로그램은 헝가리, 체코 공화국, 폴란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프로그램과 흡사하다. 학생들이 혼자서 경전을 공부하다가 일 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이는 것이다.

루마니아의 강의는 9월부터 실시되었다. 교회 교육 기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같이 전세계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레이크 형제는 말한다.

가족 및 개인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움

이렇게 상상해 보자. 16세의 로라가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정의 밤 공과 시간에 주일학교에서 배운 몇 가지 개념을 이야

기하고 있다. 로라의 아버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논쟁에 관한 몇 가지 성구를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 둘 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오고 있어서 기쁘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더 잘 할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말한다.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이러한 식의 상호 작용은 교회가 범세계적으로 연령별 그룹을 위한 통합 조정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말일성도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나의 주제로 통합 조정된 교회의 교과 과정은 부분적으로는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야기함으로써 가정을 복음을 배우고 복음 생활을 하는 중심지로서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교과 과정 자료를 또한 교회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똑같다. 이를테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는 가정이 오스트리아나 콜롬비아에 사는 가정과 똑같은 원리와 교리를 공부하게 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연령별 그룹을 위한 자료들이 똑같은 주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청소년반이나 성인반에 속한 가족과 똑같은 주제를 공부하게 된다.

1997년에는 8세에서 11세의 어린이, 14세에서 18세의 청소년 및 모든 성인은 교회사와 교리와 성약을 공부한다. 대관장단은 이 학습을 돕기 위하여 우리의 유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약사라는 새로운 책이 발간되었음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성도의 벗 12월호, 지역 소식, 4쪽의 "우리의 유산 - 복음 교리반 보충 자료 배부"를 참조한다. 그 외에 많은 자료들을 교회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주일학교 반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소개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한 이러한 자료들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물품을 주문하려면 배부 센터(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110-030, 전화 번호:(02)738-6832)로 연락한다. 물품 번호를 사용하여 여러분이 구입

하고 싶은 자료를 확인한다.

가정을 위한 자료

가족 지도서. 가족의 목적 및 조직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기본 지도서.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가족의 책임을 완수하기, 및 교회의 한 기본 단위로서의 가정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유용하다. 31180 320. 무료.

가정의 밤 자료집. 가정의 밤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 자료. "가정의 밤 공과" (특별한 행사와 명절을 위한 공과 포함), "훌륭한 가정의 밤을 갖도록 함", "공과 개념", "가정을 강화함", 및 "가정 활동" 등의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 31106 320. 3,000원

가정의 밤 비디오 보충 자료. 이 두 시간 짜리 비디오카세트는 모든 연령을 위한 자료를 담고 있고 복음을 주제로 한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정의 밤 자료집의 하나 이상의 공과와 모두 전후 참조할 수 있다. 단편들은 연차 대회, 위성 중계, 교회 영화 및 필름 스트림에서 발췌하여 만들어졌다. 53736 320. 8,000원

부모 지도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여러 성장 단계를 이해하고 복음 원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주는 지침. 자녀들에게 소년기 및 사춘기에 이성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법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르치는 데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침. 31125 320. 1,000원

복음 학습 보조 자료

복음 그림 패킷. 주로 경전 이야기와 사건을 묘사하는 천연색 그림이 104 장 들어 있다. 대부분 그림 뒷면에 간략한 이야기가 있다. 그림 번호의 색인과 적절한 참조 성구와 함께 분류 표지와 사용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가정의 밤, 복음 교육, 경전 공부 등에 사용될 수 있다. 34737 320. 10,000원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종교 324-325). 교리와 성약 각 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주석이 있는 신학 연구원 대학부 교재. 열 다섯 편의 보충란에는 학생 적용 자료와 교

회 역사에 중요한 지역의 지도가 있다. 32493 320. 6,000원

말일성도 역사 학생 교재,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종교 341-343).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부터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에 이르기까지의 교회의 역사적인 시대를 다루고 있는 신학 연구원 대학부 교재. 32502 320. 가격 미정(출간 예정)

복음 메시지 소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영원한 가족, 진리란, 사랑의 봉사, 탕자를 담고 있는 비디오키세트. 53196 320. 5,000원

1997년 교과 과정 자료

상호부조회 개인 학습 지도서 4, 나를 따라라. 이 교재는 1993년에 사용하던 것과 같은 교재이다. 34186 320. 1,000원.

말일성도 여성성, 제1과정 및 제2과정. 교회의 여성들이 교회의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생활과 가정과 가족들에게 적용하며, 가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시간과 재능과 소유물을 사용함으로써 봉사하도록 돕는, 그림이 있는 70과의 공과가 담긴 교재. 이 교재는 제2종 교과 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사용된다. 이 교재는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31113 320(제1과정), 31114 320(제2과정). 각 권 1,500원.

1997년 멜기세덱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4, 네 형제를 격려하라. 이 교재는 1993년에 사용하던 것과 같은 교재이다. 34184 320. 1,000원.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1과정 및 제2과정. 신권의 회복, 신권의 직분과 의무, 교회 조직, 가정과 가족 관계, 개인 발전, 복음 원리 및 교리 등과 같은 다양한 제목의 공과 70과가 담긴 교재. 이 교재는 제2종 교과 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사용된다. 가정 학습과 정원회 공과 보충 자료로 유용하다. 31111 320(제1과정), 31112 320(제2과정). 각 권 1,500원.

복음 교리반 교사 교재,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1993년에 사용하던 것과 같은 교재이다. 성인을 위한 복음 교리반과 14세에서 17

세 연령반의 교사를 위한 지도서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34517 320. 1,000원.

복음 원리. 구도자, 최근에 개종한 회원, 재활동 회원 및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알고 싶어하거나 더 알 필요가 있는 회원들을 위한 12개월 과정의 교재. 31110 320. 2,000원.

교리와 성약, 복음 교리반 반원 학습 지침. 각 복음 교리반 학생용 주별 독서 과제 및 학습 질문 포함. 34516 320. 120원.

우리의 유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 이 역사책은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의 유산을 강조한다. 1996년에 출판된 이 책은 교회의 출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말일성도들의 개인적인 체험을 담고 있다.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의 학습에서 교사, 개인, 가족이 사용하는 자료. 35448 320. 1,000원.

회복된 진리. 복음의 회복과 1830년부터 현재까지의 교회 역사의 개요. 33411 320. 1,000원

청소년반 및 성인 복음 교리반을 위한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비디오. 열한 편이 담긴 비디오키세트이프로서 교리와 성약 및 교회의 학습에서 청소년반과 성인 복음 교리반에서 사용된다. 53912 320. 8,000원.

음악

찬송가. 201곡의 찬송가, 여러 가지 색인, 찬송가 책의 사용 안내편이 있는 교회 공식 찬송가. 회중, 합창단, 가족 및 개인을 위하여 만들어짐. 34832 320. 2,500원. (소형, 33430 320. 2,000원)

어린이 노래책. 초등학교와 가정용을 위한 교회 공식 노래책. 그림, 참조 성구, 색인 및 사용 안내란이 포함되어 있다. 34831 320. 3,000원.

한국 BYU 영어 시범 프로그램

한국의 성도들을 위해 미국 브리감 영 대학 교에서 후원한 영어 시범 프로그램이 서울 동 신학 연구원에서 지난 1월 6일부터 25일까지 3주동안 실시되었다.

이번 영어 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수도권 지역의 말일성도 및 비회원 청소년 총 58명이 연령과 영어 수준에 따라 물론, 암몬, 엘마, 니파이 등 4개반으로 나뉘어 하루 4시간씩 진행되었다.

매일 아침의 개회 모임에서는 학생들이 돌아가며 사회, 찬송, 기도, 경전 구절 나누기 등을 영어로 진행하였으며, 수업은 단순한 주입식에서 벗어나 토론, 게임, 1대1 대화,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교수법이 적용되어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효과적으로 영어에 친숙해 지고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교사로는 아돌프스 자매, 맥퍼슨 자매, 우드 자매, 밀레트 형제가 가르쳤으며, 이들은 모두 다년간 영어 교육을 해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단지 영어를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참여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훌륭한 모범을 통해 말일성도들의 높은 가치관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전해주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획한 브리감 영 대학교 경영 대학원 측은 단순히 영어 회화 과정만을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분한 평가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평가 전문가인 아이잭슨 자매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17명의 청소년들을 직접 면담하여 이 프로그램의 영적, 지적, 사회적 측면을 평가하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위해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에드워드 엘 브라운 장로를 비롯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와 서울 동 신학 연구원의 서희철 원장이 개회 모임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

서울 동 신학 연구원에서 주최한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가 지난 1월 18일 개최되었다. 서울·서울 동·동대문·영동 등 네 개 스테이크에서 각각 네 명의 청소년들이 두 명씩 두 팀을 이루어 총 8개팀 16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1년 동안 배워 온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겨뤘다.

이날 대회는 3시부터 필기 시험에 이 치루어졌고, 이어서 4시부터는 퀴즈 대회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자원을 겨루는 각 스테이크 대표들에게 열띤 응원을 보냈다. 대회 결과 단체 1등은 서울 동 스테이크가 단체 2등은 동대문 스테이크가 차지했으며, 개인전 1등은 서울 동 스테이크의 최정, 방아람 조가 개인전 2등은 동대문 스테이크의 전승철, 정유성 조가 차지하였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서울 동 스테이크가 종합 1위를 차지함으로써 3연패를 거두어 우승컵의 영원한 소유자가 되었다. 1995년에는 최명, 이지혜 서소영, 문성애, 1996년에는 방재원, 김선영, 1997년에는 최정, 방아람, 서소영, 이지혜가 각각 우승을 하였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일일 청소년 대회

강서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1월 25일, 60여 명의 청소년이 모인 가운데 일일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먼저 길정권 형제(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로서 의지해야 하고, 물론경 읽기, 개인 일지 쓰기, 십일조 참여 그리고 교회의 신앙 생활과 더불어 학과 공부도 같이 열심히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오전에는 심성 개발 프로그램으로 별명 지어 주기, 종이로 나무 짓가락 자르기,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기술함으로



△ 동 신학 연구원 경전 퀴즈 대회
△ 강서 스테이크 일일 청소년 대회
▽ 동 스테이크 감사의 날에 최석구스테이크 부장이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다.
▽ 시작의 날 모임에서 초청 연사인 이상태 서울 서스테이크 부장이 말씀하고 있다.

써 자신의 자아를 발전시키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초기 성도들이 미국 동부에서 솔트레이크 계곡까지로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 평의원

인 표석정 형제는 우리 말일성도 청소년은 이 지상에서 선을 행해야 할 임무를 맡았으며 이를 위해서 교회와 사회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게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모임을 통해 청소년이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인식할 수 있었으며, 서로의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민경)

서울 동 스테이크

감사의 날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1996년 12월 30일, 한 해를 보내면서 자매들의 봉사과 회생에 감사하는 시간을 스테이크 센터에서 가졌다. 이것은 형제가 부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여 온 자매의 노고에 감사하고자 준비된 모임이었다.

오페라 단원 출신인 상계 와드의 콜레트 장로의 노래와 스테이크 반누리 합창단의 축하 음악 순서 후 참석한 형제들이 각각 자매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표시로 장미꽃을 전했다.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서는 바닷가재 요리가 선보여 인기를 누렸으며, 1997년에는 더욱 큰 내조를 약속하고, 자매들의 내조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시작의 날

서울 동 스테이크 시작의 날 행사가 동 신학 연구원에서 지난 1월 4일에 개최되었다.

감리자인 이우영 형제와 준비된 청년의 말씀과 간증을 들은 후에, 나의 발전 기록부 소개 및 청년 메달 수여가 있었으며 부모 대표로 최미영 자매가, 신권 지도자 대표로 안재득 지부장이 환영 인사를하였다.

분반 모임에서 송형택 형제는 형제의 표준, 신앙 생활의 지침에 대해 말씀하였으며, 와드 지부에서 준비해 온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이어서 초청 연사인 이상태 서울 서스테이크 부장으로부터 유학 시절의 경험담과 공부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들었으며, 활동 순서로 청소년의 재능 발표 시간을 가졌다.

해마다 연초에 서울 동 신학 연구원의 협조로 실시되는 시작의 날은 일일 청소년 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신학 연구원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를 주어 왔다. (박찬식)

서울 북 스테이크

원당 와드 신축 건물 헌납식



지난 1월 31일 서울 북 스테이크 원당 와드에서는 신축 건물 헌납식이 있었다. 1992년 3월 19일에 이 지역에 지부가 개설된 지 5년이 되어가는 때에 새로운 건물을 가진 것은 모든 회원들의 신앙과 소망의 결실이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렉스 디피네가 장로의 감리로 진행된 이번 헌납식에는 스테이크 부장단과 한국 관리 본부의 홍무광 형제, 시공 회사의 김상규 이사 등 14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이승후 감독의 약사 보고와 이준택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 후에 등단한 피네가 장로는 이 건물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건물에 드나들 때 우리 마음의 가장 좋은 것을 드러야 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성도들이 경건해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권고의 말씀을 주셨다.

와드 회원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의 합창은 이 지역 성도들의 기쁨을 담아 주님의 집을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치게 해주었다. (이석주)

진경섭 형제 국무총리 표창과 훈장 수상

서울 북 스테이크 원당 와드 진경섭 형제가 96년 12월 30일 이수성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장과 훈장을 수여 받았다. 정부는 96년 한 해 동안 국민 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제거하는 데 공이 큰 국민들을 선발하여 표창을 하였는데 진 형제는 모범 국민 중의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고 수상 기록이 조선 일보에 소개되었다.

진 형제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한 덕분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해의 왕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훈장을 받도록 신앙 생활을 하겠다는 간증을 전하였다.

진 형제는 현재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만 30세 미만의 국외 여행 출국 신고제도 폐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서울시 각 고궁 유모차 대여 제도, 각 관공서에 경노 대상자, 장애인 전용 창구 설치, 동사무소에서 우체국 우편 민원 제도 대행 등 많은 제도 개선을 주도하였다. 진 형제는 김순주 자매 사이에 2남 1녀(승규, 물몬, 선미)를 두고 있으며, 원당 와드 감독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황창주)

광주 신학 연구원

경전 퀴즈 대회와 중등부 졸업식

지난 1월 25일 광주 신학 연구원에서는 경전 퀴즈 대회 및 중등부 졸업식이 임종하 원장의 감리와 조용현 형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광주, 전주, 순천 세 지역이 참석한 이번 퀴즈 대회는 60여 명이 예선전에 참가하였고 그 중 12명을 선발하여 최종 본선을 치렀다. 퀴즈 대회 결과 1위는 전주 와드 홍운남, 2위는 정주 지부 김묘명, 3위는 백운 와드 최광호 형제가 각각 차지하였다.

총 70명의 이수자를 배출한 세미나리 졸업

식에서는 총장 와드 임희 자매와 순천 지부 조민영 자매가 졸업을 했으며, 광주 스테이크 청소년 위원회에서 준비한 장학금을 임희 자매에게 전달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세미나리 구약전서 과정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참석한 15명에게 모범상을 수여하였다. 수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장 와드-최보경, 이선영, 임희, 이정행, 임정훈, 풍향 와드-서한주, 정영숙, 심순미, 노송 와드-이양근, 김제 지부-김미경, 함운숙, 여천 지부-최민희, 전주 와드-홍운남, 김광일, 오정미

또한 우수 와드에 이리 와드, 우수 교사상에는 이리 와드 세미나리 교사인 김미경 자매가 받았다. 졸업생 대표 말씀에서 임희 자매는 세미나리를 통해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알았고, 이제 독신으로 신학 연구원 대학부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으며, 후배 청소년들에게 세미나리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했다.

이번 졸업식과 퀴즈 대회를 통해 이 지역 청소년들은 복음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올해의 세미나리 과정인 신약전서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박유미)

광주 스테이크

"흔적을 따라"

지난 1월 25일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스테이크 합동 독신 성인 모임이 교회의 초기 개척자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설정된 '흔적을 따라'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개회 후 세 개의 반으로 분반하여 초기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윤현철 형제가 요셉 스미스에 대해, 강남현 형제가 서부 개척에 대해, 안성진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각각 강의하였다. 이어서 초기의 상황을 신문 기사화 하여 그 작품을 한 데 모아 평가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 모임을 통해 광주 스테이크 독신 성인들은 초기 성도들이 겪었던 시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과거의 사건들을 한층 현실감있게 느낄 수 있었다.(서나미)

전주 스테이크

신년 무도회

지난 1월 2일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한 해를 새롭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여 독신들간의 친목과 우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합당한 표준을 가지고 성전 결혼을 준비하는 목적 아래 신년 무도회를 열게 되었다. 이번 모임에는 기존 회원들도 참석하여 무도회를 빛내 주었다.

이어 제1부 순서로 진행된 가요제에서는 예선을 거친 8팀 모두가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1등은 노송 와드의 남진숙 자매, 남화영 자매, 2등은 남원 지부의 강호철 형제, 3등은 남원 지부의 김민경 자매가 수상하였다.

형제가 자매에게 꽃을 전하면서 시작한 2부 순서인 무도회에서는 장정수 형제와 장정옥 자매가 진행하였으며, 무도회 중간에 문종민 형제와 박혜정 자매의 무도 시범과 신입 독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 참석한 90여 명의 회원들은 새해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하는 기쁨을 나누며 헤어졌다.(박혜정)

새로운 시작

지난 1월 18일 전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청년 새로운 시작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은 새 해를 맞이하여 청년 목표와 청년 프로그램에 관해 알려 주며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해나가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진리와 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목표를 심어 주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김종갑 스테이크 부장의 환영 말씀에 이어 1997년 전주 스테이크 청년 목표인 '회복'에 대한 김미경 자매의 소개가 있었다. 계속해서 청년 지도자와 세미나리 교사들이 준비한 연극과 중앙 와드 청년들의 음악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딸에 대해 광주

신학 연구원 조용현 형제의 말씀이 있었다. 유행의 시녀가 되지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내어 보이며, 자신의 향기인 청년의 일곱 가치관을 갖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성도의 빛과 경전을 통해서 영의 소리를 듣고, 권고하고, 상대방의 장점과 자연의 소리, 눈 빛,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는 것으로 인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보화 받을 수 있다고 간증하였다.

이번 새로운 시작 모임은 주님의 영이 함께 하여, 청년들에게 의로운 목표와 결심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남화영)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신축 건물 헌납식

지난 1월 17일에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브라운 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대명 와드 집회소 헌납식을 가졌다. 헌납식에는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 서원 관리 본부 대표, 리시먼 부산 선교부장, 대구 스테이크 부장단 등 130여 명이 참여했다. 입주를 알리는 테이프 컷팅식에 이어 개회 순서를 가졌으며, 와드 합창단이 특별 찬송을 하였다.

말씀으로 배덕수 대명 와드 감독은 커틀랜드 성전 헌납문을 인용하면서 새 건물에 어울리는 충실한 회원이 되자고 하였으며, 최정희 자매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였다.

서원 관리 본부 대표는 교회를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전정신 대구 스테이크 부장은 이 지역의 선교 사업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고하였다.

회중 찬송을 부르고 나서 김종열 장로는 성찬식과 다른 교회 모임에서 경건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브라운 장로는 간간이 한국어를 사용하며 오랫동안 신앙을 유지해온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복음을 이웃에게 알려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대명 와드 신축 건물 전경
▽ 대명 와드 컷팅식 왼쪽부터 이승부 사장, 서원 대표, 김종열 장로, 브라운 장로,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 배덕수 감독, 이동석 형제

말씀이 끝난 후 집회소 헌납 기도를 브라운 장로가 한국어로 하였다.(변창훈)

보이 스카우트 동계 대회



대구 스테이크의 청남으로 구성된 보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민족 문화 유적지를 순례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현들의 삶의 지혜와 호국 정신을 배우게 하고, 배달 민족의 후예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일깨운다는 목적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35명의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도 일원에서 동계 대회를 가졌다.

아름다운 자연에 모두 감탄 하였고, 특히 도끼비 도로에서는 그 신비함에 취하기도 했

다. 자연사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근처에서 눈에 띈 제주 지부 건물로 들어가기도 했다.

말일성도 청소년들의 합당한 복장과 행동은 숙소에서는 함께 한 300여 명의 다른 학교 대원들과 보이 스카우트 연맹 담당자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새벽 6시 기상과 40여 분간의 시내 조깅 그리고 경전 읽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으며, 서로 나누는 복음에 대한 간증은 대원들에게 교회의 참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활동에 참여하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의 밝고 건전하며, 용기있고 부지런함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힘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원 모두는 아름다운 추억과 앞으로 어떤 활동과 계획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고 돌아왔다.(차대환, 유병주)

부산 신학 연구원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



지난 1월 24일 부산 스테이크 수성 와드에 서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구약전서 경시 대회가 열렸는데, 1위는 수성 와드 최혜정 자매가 차지했으며, 영천 지부 김순덕 자매와 중리 와드 김향순 자매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경전 퀴즈 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공부한 청소년들의 뜨거운 열전 끝에 수성 와드

가 1위를 차지했으며, 중리 와드, 영천 지부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두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수성 와드는 최근 토요 모임을 비롯한 청소년 활동이 활성화되어 놀라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승연) □

바로잡습니다.

성도의 빛 1997년 2월호 10쪽 이후의 "몽골"은 "몽골"의 잘못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성도의 빛 1997년 2월호 교회 소식 10쪽의 존 험프턴은 존 험츠맨(Jon Huntsman)의 잘못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195기 (1997년 1월 8일 - 1월 24일)



〈성 명〉	〈출 신 지〉	〈선 교 부〉
백광진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면목 와드	대전 선교부
이준규 장로	수원 스테이크/신평 와드	대전 선교부
김 신 장로	안양 스테이크/독산 와드	대전 선교부
박신기 장로	대구 스테이크/김천 지부	대전 선교부
이용범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신장 지부	부산 선교부
이상우 장로	청주 스테이크/공주 지부	부산 선교부
배종선 장로	광주 스테이크/충장 와드	부산 선교부
조규현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영동 와드	부산 선교부
이신정 자매	서울 영동 스테이크/신장 지부	대전 선교부
김병옥 자매	대구 스테이크/포항 지부	대전 선교부
유정숙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홍제 지부	대전 선교부
이은희 자매	청주 스테이크/둔산 와드	서울 서 선교부
김현정 자매	서울 영동 스테이크/신장 지부	대전 선교부

사진 설명 뒷줄 왼쪽부터: 배종선, 박신기, 김현정, 이은희, 유정숙, 김병옥, 이신정, 이상우, 조규현
앞줄 왼쪽부터: 김 신, 백광진, 이준규, 이용범